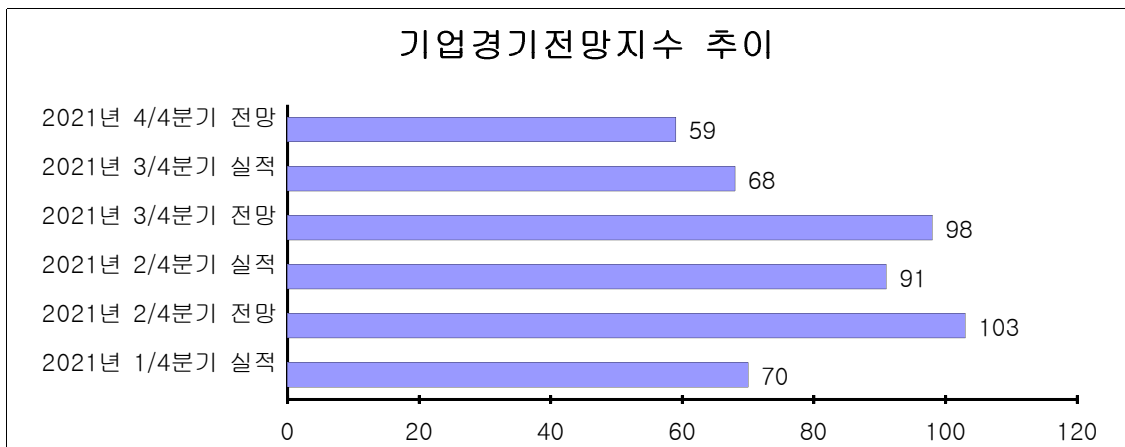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査結果	2021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회원조사과 054)632-8830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1년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 분기보다 '39' 포인트 하락한 '59' 를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2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21년 1/4분기 실적	2021년 2/4분기 전망	2021년 2/4분기 실적	2021년 3/4분기 전망	2021년 3/4분기 실적	2021년 4/4분기 전망
체감경기	68	105	83	92	48	57
매출액	70	105	96	100	61	52
영업이익	59	95	91	87	57	43
자금조달 여건	68	110	100	100	113	57
설비투자	86	100	74	87	65	65
공급망 안정성	X	X	96	109	57	70
사업장 가동	X	X	100	109	74	70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21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57, 매출액 52, 영업이익 43, 설비투자 57, 자금조달 여건 65, 공급망 안정성 70, 사업장·공장 가동 70이다. 대체적으로 2021년 4/4분기 전망은 2021년 3/4분기 전망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항목에서 ‘3.5%미만(69.6%)’, ‘3.5% 이상 4.0% 미만(21.7%)’, ‘4.0% 이상 4.5% 미만(8.7%)’ 순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정부 전망치인 ‘4.2%’ 보다 낮은 ‘3.5%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또한, 금년 실적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을 묻는 항목에서는 ‘목표치 미달’ (73.9%), ‘목표치 달성·근접’ (21.7%), ‘목표치 초과 달성’ (4.3%)로 대부분의 업체가 목표치에 미달하였고 극히 일부의 업체만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금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항목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41.7%)’, ‘환율·원자재가 변동성(22.9%)’,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조달 여건악화(20.8%)’, ‘금리 인상기조(8.3%)’,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인한 경제이슈 소멸(4.2%)’, ‘美·中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2.1%)’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들어 코로나19가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에 대해 묻는 항목에는 ‘재택근무제, 비대면 회의 등 업무환경 변화(30.3%)’,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27.3%)’, ‘변화없음(24.2%)’, ‘경제적 가치 창출 뿐 아니라, ESG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15.2%)’, ‘스마트 공장, AI·무인화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기술 도입(3.0%)’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 2021. 8. 26 ~ 9. 8 (휴일제외 10일 동안)
-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 조사방법 : 전화, FAX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 BSI지수= $[(\text{호전예상업체수}-\text{악화예상업체수}) \div \text{전체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